

## 四象人の 心性과 융(C. G. Jung)의 精神의 四機能 類型 比較 考察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최은규 · 구병수

### I. 緒 論

大多數의 學問에서는 하나의 假說을 非個人的인 主體에 적용하는 것을 定當한 方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人間 특히 人間の 精神을 다루는 精神科學에서는 두 個體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즉 兩者의 어느쪽으로 부터도 그 主觀的인 人格을 빼앗을 수 없으며, 다른 方法으로 非人格化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人間の 人格 즉, 個性 은 無限이라고 할 수 있는 多樣性이 있지만 그것에 어떤 規則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이러한 특성 때문에 人間の 心性 내지는 體質을 分類하는 作業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왔다.

또한, 韓醫學에서는 以道(治心)療法이라 하여 發病前에 治療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up>2,3)</sup>. 이런 思想은 疾病의 根源이 心神에서 起因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여 一般的인 疾患에서조차 原因으로 心因的인 要素를 중요시 하였다. 또 太白眞人說에 의하면 “欲治其疾先治其心”이라하여 病을 治療하려면 먼저 그 心을 治療해야한다고 하였다. 즉 먼저 修道正心한 然後에 患者는 心中에 潛在하는 疑惑思慮와 一切의 妄念, 一切의 不平,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憎惡와 讐怨, 一切의 悔悟, 지나간 過誤를 放念하고 萬事를 天意에 依託順應하면 心志가 自然히 淸靜하고 疾病은 自然히 快癒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思想은 自然哲學思想과 道敎에 많은 影響을 받아 小宇宙인 人間은 自然의 攝理에 順응하여 過慾,

過勞함이 없고 懈怠, 安逸, 放恣함이 없는 中庸之道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적인 治療에 있어서는 內經의 移精變氣論에 “들은바에 의하면 옛사람의 病에 대한 治療는 精神을 轉換하고 氣를 變換시키는데 굿만으로도 된다”하여 古代時代에는 굿 등의 心理療法으로 精神을 轉換시켜 治病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心理的인 治療보다는 주로 藥物, 鍼灸등의 治療에 主眼點을 두었다. 이런 治療 方法의 變化는 方藥等의 治療方法이 우수했기 때문일수도 있으나 또한 오랜 封建社會속에서 사람들의 精神世界는 더욱더 속박을 받았으며, 환자들의 眞實한 心理狀態를 파악하고 適當한 心理治療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sup>3)</sup>. 이러한 치료의 형태의 변화는 心身을 同一視하는 韓醫學 特有의 思想에 기인한다고 보겠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治療에 있어서 物質이 우선하는 結果를 나았다.

이에 著者는 李濟馬의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太少陰陽人의 心性과 융(C. G. Jung)의 心理학적 유형론(psychologische typen)에 나오는 人間心理類型을 비교하여 보고 精神科 方面에서 이러한 人格差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性格障礙 내지는 人格障礙 등의 精神醫學的 問題를 治療하는 方法으로서의 精神治療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1. 李濟馬의 四象醫學

東洋에서는 最古의 古典인 黃帝 內經의 靈樞 陰陽 二十五人篇(六十四)에는 사람을 五行에 따라 分類하고 다시 각각 다섯 형태로 구분한 二十五人論을 말하고 있으며 黃帝 內經 靈樞 通天篇(七十一)에는 稟賦의 相異함을 근거로 사람의 體質을 다섯으로 나누어 五態人이라 稱하였다. 그 후 張景岳은 사람을 陰臟人과 陽臟人으로 나는 陰陽人論을 말하였다<sup>45,67)</sup>. 李濟馬는 東醫 壽世保元에서 體質論을 論하여 “靈樞書中 有太少陰陽五行人論而略得外形 未得臟理 蓋太少陰陽人 早有古昔之見而未盡精究也”라하여 四象體質論이 內經의 五態人論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특한 理論 體系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病因에 있어서 愛惡所慾과 喜怒哀樂의 偏差를 爲主로 하였고 그 喜怒哀樂이란 것도 同一한 情緒的인 感情으로 偏着되어 發病하는 것이 아니라 哀性哀情의 相成相資하는 先天的인 生理에 基因하여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病理的過程 및 病證의 大相不同한 것이라 闡明하였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단순한 肉體的인 體質論이라기 보다는 喜怒哀樂의 像을 基本으로 삼은 體質醫學이라 볼 수 있다<sup>45,8)</sup>.

李濟馬의 四象醫學說은 天과 人間을 對待로 보는 동시에 人間을 中心으로 하는 思想이다. 그러므로 東武는 人間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實生活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性命論>>에서 天人性命을 宇宙構成的인 四圓構造原理로 설명하였으며 이중 性, 命이 根幹을 이루고 있다. 즉, 形而上學的인 現象을 性으로 보고, 形而下學的인 現象을 命으로 보았다. 그가 보는 人間觀은 첫째 <性命論>에서 말한 知行의 人間으로 이는 곧 責心 責氣 하는 自律의 人間이다. 둘째 倫理的인 人間相으로 보는 性善의인 面과 性惡의인 面の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李濟馬는 여기서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라 하여 倫理的인 病이 肉體的인 病苦에 우선함을 말함으로 病 또는 藥의 概念도 倫理的인 昇華시켰다. 셋째 生活人으로서의 人間相으로 慧覺의 人間과 資業의 人間이다. 慧覺이란 形而上學的인 現象으로 精神世界를

말하며 資業이란 生産活動等의 物質的인 世界를 말한다. 또한 生理的인 面에서의 人間으로 肺脾肝腎의 肉體的인 人間과 喜怒哀樂의 精神的인 人間의 兩面性을 認識하였고 여기에 또 天賦的인 人間觀을 追加하여 人間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天賦的인 差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sup>8)</sup>.

### 1) 四象哲學의 本體論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四象人의 體質의 名稱을 ‘太少陰陽人’으로 규정하고 네 체질의 差等性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太少陰陽人이라는 것은 단지 四象人의 體質의 名稱일 뿐 李濟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四象’이 아니다. 四象醫學에서의 四象의 本體論의 構造는 ‘太極 - 兩儀 - 四象’으로 이어지는 構造, 즉 ‘心 - 心/身 - 事/心/身/物’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四象의 의미는 四物類의 要約精神에 입각해서 서로 다른 네가지 類型의 物象을 의미하는 것으로 ‘周易’에서 말하는 陰陽의 偏差性을 나타내는 符號로서의 四象과는 차이가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天生萬物 有物有則”에서 나타나듯 ‘物’과 ‘則’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四象의 分化過程을 설명하고 있는데, 太陽과 兩儀는 ‘則’에 해당되고, 四象은 ‘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四象을 더 이상 分化하지 않는 實體의 概念의 物象으로 보고 모든 事物의 構成的인 要素의 基本單位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주의 構成的인 要素, 發生變化的인 要素, 自體調和的인 要素, 物象으로서의 表象의 要素를 모두 갖춘 本體로서 인식되어지는 概念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心身物의 物象은 단독으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太極인 心과 兩儀인 心身의 內面的인 바탕을 통해서 事心身物의 物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物象은 반드시 性(善)과 慾(惡)의 認識論的인 바탕을 깔고 表出되는 것이다. 즉 四象醫學에서 四象의 의미는 ‘事物의 構成的인 要素(體)와 變化的인 要素(用)를 四物類의 要約하는 精神’이라 할 수 있다<sup>45,7)</sup>.

### 2) 天人性命論

天人性命論은 四象構造論이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든 우주만물의 구성과 생성변화의 원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天機'이고, 둘째는 '人事'이고, 셋째는 '知' 혹은 '性'이라 하였고, 넷째는 '行' 혹은 '命'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함에 있어 李濟馬는 인간을 중심에 두었다. 인간을 중심으로하여 外在的인 要素에 天機와 人事를, 內在的인 要素에는 知와 行을 다루고 있다. '天機'와 '人事'의 구분은 인간을 主體로 볼 때 客體에 해당하는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적 요소를 天機의 범위 내에서 다루었고, 主體가 되는 인간의 생활이 지닌 특징적 요소를 人事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內在的 즉 인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知와 行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知'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징중에서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 요소 혹은 무형적 요소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行'은 외부로 표출되는 특징과 가시적 혹은 물리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知와 行이 心과 身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4가지의 큰 기준은 다시 각각 4요소로 세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즉 '天機'에는 '天時'·'世會'·'人倫'·'地方'으로, '人事'는 '事務'·'交遇'·'黨與'·'居處'로, '知'는 '壽策'·'經綸'·'行檢'·'度量'으로, 그리고 '行'은 '識見'·'威儀'·'才幹'·'方略' 등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sup>47)</sup>.

### 3) 知行論

'知'와 '行'은 자연적 혹은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인 동시에 스스로 갖고 닦는 도야를 통하여 그 능력의 수준이 많은 차이를 지닌다. 즉 '知'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선천적으로 지니게 된 인식 혹은 이해와 사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나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형성된 의지에 따라 '行'으로 표현하게 되며 그 행동의 표현 결과가 우리의 생활 모습이 된다는 것이다. 知와 行은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각각 네단계로 나누어 표현되어 있다. '知'에는 壽策·經綸·行檢·度量이 있으며 이는 각각 太陰人·少陰人·太陽人·少陽人에 해당하고, '行'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으며 이 또한 각각 少陰人·太陰人·少陽人·太陽人에 해당된다.

知에 있어서 度量이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

적인 능력을 말하며, 行檢은 사회생활에 적합한 상태로 절제와 규제의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 지는 것, 經綸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 壽策은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 혹은 지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行에 있어서는 方略은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행동 능력을 말한다. 材幹은 필요한 행동 면에서 우리가 몸을 통해 스스로 익혀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威儀란 우리가 익힌 기본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고 識見은 설세없이 변하는 상황속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4)</sup>.

### 4) 性情論

中庸에 感情의 發顯인 喜怒哀樂이 마음에서 아직 發露되지 않은 상태를 性이라 하였으며 이는 天賦的인 本然의 心性이라 하였고 喜怒哀樂이 感情으로 發露가 된 것을 情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性은 情이 아직 發하지 않은 상태이며, 情은 性이 이미 發한 상태를 말한다.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는 性情을 氣의 概念으로 파악하여 喜怒哀樂之氣의 順動은 性으로 작용하고, 喜怒哀樂의 逆動은 情으로 작용하여 臟局의 形成에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喜怒哀樂의 性情과 天機 人事와의 관계를 다음으로써 喜怒哀樂의 개념을 보다 넓게 확충하였다. 喜怒哀樂의 性은 耳目鼻口의 廣博天機하는 聽視嗅味의 機能이고, 喜怒哀樂의 情은 肺脾肝腎의 鍊達人事하는 喜怒哀樂의 機能으로 李濟馬의 性情은 天機와 人事와의 관계로 즉 大同과 各立의 관계이다. 이러한 性과 情은 四象人에 있어 氣의 형태로 표출될 때 性氣 情氣의 형태로 나타난다<sup>45,7)</sup>.

#### ① 四象人의 性氣

性은 四象人의 耳目鼻口가 天機를 살필 때 衆人들이 서로 속이는(欺) 것을 슬퍼하고(哀), 衆人들이 서로 업신여기는(侮) 것을 노여워하며(怒), 衆人들이 서로 돕는(助) 것을 기뻐하고(喜), 중인들이 서로 보호하는(保) 것을 즐거워하는(樂) 것이니 이는 耳目鼻口가 天機를 듣고(聽) 보고(視) 냄새 맡고(嗅) 맛보는(味) 기능이다. 이에 바탕을 둔 인간 본연의 공통된 정서가 바로 性이라 하겠다.

太陽의 性氣는 항상 나아가려 하고 물러서려 하지

않으며,少陽의 性氣는 항상 들려고 하며 놓으려 하지 않으며,太陰의 性氣는 항상 고요하려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少陰의 性氣는 항상 집에 있으려 하고 나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四象人의 이러한 天賦의 특징인 性氣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性氣의 특성이 아무리 天稟의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역량(材·力·知·謨)이 충분한가를 들여다 보는 自反意識이 필요하다<sup>45,7)</sup>.

② 四象人 情氣

情은 四象人의 肺脾肝腎이 人事를 실행할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기는(侮) 것을 노여워(怒)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欺) 것을 슬퍼(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는(保) 것을 즐거워(樂)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돕는(助) 것을 기뻐하는(喜) 것이니 이는 肺脾肝腎이 人事를 哀怒喜樂하는 기능이다. 이에 바탕을 둔 천부적인 특징이 情이다.

太陽의 情氣는 항상 수컷이 되고자 하고 암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少陰의 情氣는 항상 암컷이 되고자 하고 수컷이 되고자 하지 않으며,少陽의 情氣는 항상 밖으로 이기고자 하고 안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으며,太陰의 情氣는 항상 안으로 지키고자 하고 밖으로 이기고자 하지 않는다.

情氣 또한 性氣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타고난 특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恒戒함으로써 中和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心慾의인 면으로 나타나게된다<sup>45)</sup>.

③ 性氣 情氣의 相對성과 警戒

四象人은 性氣와 情氣에서 서로 다른 絕對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

性氣의 特性은 太陽人과 太陰人이 相對的이고, 少陽人과 少陰人이 相對的이다. 따라서 四象人의 性氣는 材力知謨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 조건 위에서 상대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邪心을 경계함으로써 絶世의 知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情氣의 特性으로는 太陽人과 少陰人이 相對的이고, 少陽人과 太陰人이 相對的이다. 李濟馬는 性氣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한 조건으로 雄과 雌, 內守와 外勝이 적절히 중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잘못되면

心慾의인 面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러한 相對的 특징에서 나타나는 怠心을 경계함으로써 大人의 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4)</sup>.

④ 性氣 情氣의 發現

四象人의 性氣와 情氣는 각 體質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비록 性氣와 情氣가 內的으로 감추어진 稟性이며 本性이지만, 이러한 性情의 바탕 때문에 四象人에 있어 外적으로 관찰되는 性質 材幹의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性氣와 情氣는 四象人의 恒心과 心慾의 특징을 나타내는 바탕이 된다. 더불어 性情은 相成 相資함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極甚한 상태에서는 心身의인 側面的 病理的 狀態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sup>45)</sup>.

4) 四象人 性情

① 太陽人의 性情

매우 疏通하는 性格을 所有하고 社交的이며 果斷性, 進就性이 강하다. 반면에 計劃性이 적고 大膽하지 못하며 남을 攻擊하기를 잘하고 後退할 줄을 모른다. 지나친 英雄心이 강하여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심한 忿怒를 발한다. 頭腦가 明哲하고 創意力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飛躍한다<sup>45,6,7,9,10,13,21)</sup>.

② 少陽人의 性情

恒常 外部 일에 集中하기를 좋아하므로 자신의 일이나 家庭의 일은 疏忽하게 여긴다. 他人의 일에는 犧牲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 判斷力이 빠르나 計劃性이 적으며 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체념을 잘한다. 義라고 생각할 때는 물 불을 헤아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어떤 위험도 뛰어들는다. 잘못을 미워하다가도 상대가 뉘우치거나 謝罪를 하게 되면 同情으로 변하고 지난 일을 잊는다. 혹 자신이 잘못을 알게 되면 哀心으로 변하여 精神的, 肉體의 큰 害를 본다. 매우 輕薄한 것 같지만 多情多感하며 奉仕精神이 透徹하여 사람의 好感을 산다. 少陽人은 모든일이나 開拓하는데 長技가 있지만 마무리는 부족하다. 率直淡泊하여 中心에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하며 利害打算에 좀처럼 變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四象人中에서 가장 욕심이 적고 性質이 급하여 오락같은 것을 잘하지 못한다<sup>45,6,7,9,10,13,21)</sup>.

③ 太陰人의 性情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으나 속은 음흉하여 좀체로 속마음을 들어내지 않는다. 마음이 넓게 먹을 때는 바다와 같이 고집스럽고 편협할 때는 바늘 구멍보다 좁다. 뻔히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도 無謀하게 밀고 나가는 우둔성이 있어 마치 소에 비유할 수 있다. 엉덩이가 무거워 어디가서 앉으면 좀체로 일어나지 않으며, 비록 말이 없어도 마음속으로는 無益한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태음인의 樂情이란 고등사치를 의미하며 道樂을 매우 좋아한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持久力이 있어 成功하는 率이 사상인 중에 가장 많다. 自己의 主張은 相對가 좋아하건 말건 끝까지 所信을 辟력하는 끈질긴 性格이다. 條理가 없고 非論理的인 것 같지만 自身으로는 반드시 骨子가 있는 것이다. 남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디지만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끌고나가는 투지력이 있다<sup>4,5,6,7,9,10,13,21</sup>.

④ 少陰人の 性情

內性的이고 社交的인 편이다. 표면으로는 매우 柔軟해보이지만 外柔內強하다. 작은 일에도 細心하고 過敏성이 있어 늘 不安定한 마음을 갖는다. 我田引水格으로 自己體位만 생각하며 實利를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頭腦가 聰明하여 判斷力이 빠르고 組織的이며 事務的이다. 맡은 일은 빈틈없이 處理를 잘하며 自己가 할 일에 干涉하거나 손대는 일을 매우 싫어한다. 또 남에 잘하는 일에 嫉妬가 심하고 知能이 발달하여 잘못흐르게 되면 緊蹙한 事件도 저지른다. 偏私心이 많아 남을 오해하기 쉽고 한번 먹은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오랜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재현한다. 매우 打算的이어서 적은 損害도 容認하지 않는 吝嗇하고 不信하는 일이 많다. 自己보다 작은 者 앞에서는 아부하며 是非가 생길 때는 곧 後退하나 機會를 보아 後面에서 報復한다<sup>4,5,6,7,9,10,13,21</sup>.

5) 四象體質에 따른 養生

李濟馬는 “天下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서 나온다”하여 喜怒哀樂의 葛藤이 모두 知行的 不備에서 온다고 보고 四象人の 體質的 知行을 通하여 暴動浪動을 豫防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太陽人은 暴怒深哀를, 少陽人은 暴哀深怒를, 太陰人은 浪樂深喜를, 少陰人은 浪喜深樂을 경

계하여 性情의 體質的 偏在現象을 警戒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5,7</sup>.

또, 四象人の 性氣를 進·舉·靜·處로 설명하고, 四象人の 情氣는 雌·雄·外·內로 말하여 太陽人은 ‘退一步’하고, 少陰人은 ‘進一步’하며, 少陽人은 ‘察於內’하고, 太陰人은 ‘察於外’하는 것이 養生에 있어서 중요하다. 함으로써 心慾의 闊狹을 偏倚過不及의 立場에서 파악하여 中庸을 지키도록 하였다<sup>4,5,7</sup>.

그리고 人事의 能否도 體質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太陽人은 交遇에 能하나 黨與에 能하지 못하고, 少陽人은 事務에 能하나 居處에 能하지 못하고, 太陰人은 居處에 能하나 事務에 能하지 못하고, 少陰人은 黨與에 能하나 交遇에 能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平素 生活속에 太陽人은 懶怠하지 말고 勤幹할 것을, 少陽人은 驕奢하지 말고 簡約할 것을, 少陰人은 偏急하지 말고 警戒할 것을, 太陰人은 貪慾하지 말고 聞見을 넓힐 것을 강조함으로써 四象人の 生活 속에서도 內外的 均衡生活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李濟馬는 “妬賢嫉能은 天下之多病也요 好賢樂善은 天下之大藥也”라하여 四象人の 知行的 調節을 통하여 治心治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4,5,7</sup>.

<표. 1> 四象人 性情要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性情	暴怒深哀	暴哀深怒	浪樂深喜	浪喜深樂
性氣	恒欲進而不欲退	恒欲舉而不欲措	恒欲靜而不欲動	恒欲處而不欲出
情氣	恒欲爲雄而不欲爲雌	恒欲爲外勝而不欲爲內守	恒欲爲內守而不欲爲外勝	恒欲爲雌而不欲爲雄
性格·態度의 長點	交遇 重視	事務 重視	居處 重視	黨與 重視
性格·態度의 短點	伐心 欲心	夸心 懶心	驕慢心 奢侈心	矜心 擅心
氣質上의 特長	欲進 欲爲雄	欲舉 欲外勝	欲靜 欲內守	欲處 欲爲雌
氣質上의 短點	不欲退 不欲爲雌	不欲措 不欲內守	不欲動 不欲外勝	不欲出 不欲爲雄
知	行檢	度量	籌策	經綸
行	方略	材幹	威儀	識見
心慾	棄禮而放縱	棄智而飾私	棄仁而極慾	棄義而偷逸

## 2.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

西洋醫學에서도 많은 體質論的 研究가 있었다.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四液體病理說을 주장한 이래 갈레누스(Galenus)의 四氣質說, 칸트(Immanuel Kant)의 감성적 기질과 활성적 기질, 이외에도 크레즈머(E. Kretschmer), 란트스타이너(Landsteiner), 버나드(C. Bernard), 셸던(W. H. Sheldon), 설리반(N. S. Sullivan), 로저스(C. Rogers), 슈프링거(E. Spranger), 아들러(A. Adler), 프롬(E. Fromm)등의 體質論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分類는 다분히 生物學的 分類였다<sup>4,5,6,7,10,14,15,16,17,18,24)</sup>. 그러다 20世紀에 융(C. G. Jung)이 심리학적 유형론(psychologische typen)을 제창하였다. 이는 그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가 臨床에서 관찰해온 모든 경험들, 그리고 그밖의 모든 사회계층에서의 인간 관계, 그 자신이 프로이드나 그 밖의 반대론자들과의 對決과 葛藤, 그의 學說의 特異性에 대한 다른 학자들이 批判을 살펴 보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학설로 발표한 것이다. 특히 융의 이 學說은 古代 東洋의 易思想과도 共通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sup>14)</sup>.

1920년경 융은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책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인간이란 여러 가지 유형의 특징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학설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길을 터놓았다. 융의 다른 학설과는 달리 심리학적 유형론은 의식의 구조와 각 기능의 유형과 그 무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한 학설로 누구에게나 이해되기 쉽고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고대 동양의 역 사상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어 융이 경험적으로 파악한 외향, 내향, 의식, 무의식의 대극형성과 그 상호보완 또는 전환의 원리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융은 심리학적 유형을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 둘째는 정신의 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중 적용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분화된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 이를 기능 유형이라 했다. 여기서는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한 기능 유형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의 기능은 네가지로 분류 된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기능이 그것이다. 사고와 감정기능을 합리적 기능, 감각과 직관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라하여 서로

극을 이룬다. 사고와 감정을 합리적 기능이라고 한 것은 두 기능이 모두 正,不正, 快, 不快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인데 판단과정이란 이치에 맞게 진행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감각과 직관은 理性的 思慮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인 기능에 속한다고 한다<sup>14,17,21)</sup>.

### 1) 정신(마음)의 구조

융은 정신이 크게 意識과 無意識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두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外向的이라면 무의식은 內向的이고 의식적으로 思考型이라면 무의식적으로는 感情型이라는 것이다. 또 무의식은 個人的 無意識과 集團的 無意識으로 이루어져 있다. 意識世界的 中心을 구성하고 高度의 持續性과 同一性을 지니고 있는 表現의 Complex를 自我라고 말하고 이 自我가 의식의 주체라고 했다. 즉 의식이란 自我와 심리적인 내용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능이나 활동이라 했다. 이 의식이 어떠한 상황이나 유동적인 환경에서도 일정한 유형의 心理的 活動을 하는 것을 心理的 機能 혹은 意識의 機能이라하여 思考 感覺 感情 直觀의 네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適應에 대한 지배적인 기능이며 의식적인 태도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특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개인의 意識의인 意志에 항상 이용된다. 그러므로 心理的 類型은 개인의 사회적, 지적,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는 일반적인 慣習이 된다. 無意識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의 정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의 未知의 精神世界이다. 無意識의 意識에 대한 관계는 代償的이다. 代償作用은 무의식의 중요한 기능이다. 無意識은 意識의 缺如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그 개체의 精神的인 統合을 꾀한다. 의식이 너무 일방적으로 知的이면 무의식은 靜的이며, 의식이 지나치게 外向的이면 무의식은 內向的인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無意識은 個人的 無意識과 集團的 無意識으로 나뉜다. 個人的 無意識은 개인 생활에서 經驗한 내용 가운데 意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性格上의 特性을 이룬다. 集團的 無意識은 개인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普遍的인 內容이다. 이

것은 個人的인 特性보다는 人類 一般의 特性을 부여한다. 集團的 無意識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根源的 類型(原型)들에 의하여 구성된다. 原型은 인간이면 누구나의 精神에나 존재하는 人間精神의 普遍的이며 根源的인 核이다. 이것은 단순한 知的 概念이 아니라 未曾有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能力이며 때에 따라서는 意識을 지배하여 그 機能을 抹消해 버리기도 한다.<sup>1,14,17,20,21)</sup>

### 2) 意識의 一般的인 態度類型

일반적인 태도 유형은 內向的 태도와 外向的 태도가 있는데 흔히, 내향적인 태도는 수줍고 비사회적인 태도, 외향적인 태도는 사회적이고 활발한 사람의 태도를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통속적인 해석이고 다만 그 개념의 한 면만을 말한 지적인 말이다. 外向的 내향적 태도의 구별은 객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릴 수 있다.

그사람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면 외향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객체보다도 주체를 중요시하면 내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것이 주로 객체일 때 그의 태도는 외향적이며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객체보다도 주체이면 그의 태도는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향형은 더 바깥, 집단, 타당한 규범, 그 당시의 시대정신 등에 따라 적응하고 반응하는데 반해 내향형은 주로 주관적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 3) 정신(마음)의 기능

정신의 기능은 思考, 感情, 感覺, 直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간의 활동은 기본적인 4가지 기능 중에 어느 것에도 종속 될 수 없으나 이들 모든 諸機能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융은 보편적인 법칙과 과정의 일반 심리학을 개인 심리학으로 변형시켜 독특한 특징과 행동을 설명했다. 사고와 감정은 正, 不正, 快, 不快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능이라고 하고, 감각과 직관은 理性的 고려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인 기능으로 구분한다. 이 기능을 구

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다.

위의 네가지 기능과 두 가지 태도 유형을 배합한 융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 ① 사고(Thinking function)

주어진 관념내용을 그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 시키는 정신기능으로 분화된 사고는 고태적인 것과 혼돈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미분화된 기능의 특징은 미분화된 감정, 감각 환상과 혼돈되어 양가 경향을 나타낸다. 능동적 사고 작용은 어떤 목적을 향해 방향지워진 사고로서 의지적 판단 작용이며 합리적 기능이지만, 수동적 사고 작용은 일종의 직관적 사고로서 비합리적, 감정적 사고이고 논리적 원칙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종속된 사고이다. 사고의 원천은 우리가 잘 모르는 무의식의 원천에서 주어진 주관적인 것과 감각을 통한 지각으로써 전달되는 객관적 사항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다. 또한 판단의 기준에 따라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를 구별한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 a. 외향적 사고형(Extroverted thinking type)

사고의 원천이 감각을 통한 지각으로써 전달되는 객관적 사항에서 주어진다. 즉, 객관적 관련성에서 벌려온 평가기준이 유효하고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사고가 외향적인 방향을 취한다. 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기능에 의해 생활하는 형이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볼 수 있고 정부기관이나 상사의 행정가, 사무가, 법관, 과학자(지식의 확장)등이 이런 유형이 많으며 정확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외향적 사고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이들은 단체 조직에 능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개인 사이의 또는 집단간의 분쟁 해결을 조절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 외향적 사고형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어서 그의 사고는 긍정적이며 기존 가치의 절대 부정이기보다는 파괴된가치를 다른 가치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외향적 사고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이 감정기능이다. 극단적인 외향적 사고형의 의식에서는 보편성과 객관성과 무사공정을 지향하는데 무의식에서는 점점 더 사적인 이지적의 감정적 경향이 강해진다. 그 의식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극대화할 때 무의식에서는 내향적 감정 뿐만아니라 외향적 사고의 긍정성과 반대되는 부정적 사고 경향이 나타난다.<sup>1,4,5,6,7,10,14,15,</sup>

16,17,20,21,23,24)

b. 내향적 사고형(Introverted thinking type)

사고의 원천이 주관적인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무의식에서 주어지며 사고가 내향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다. 지적인 판단이 중요하나 객관적 사실보다 이념이나 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향적 사고형은 이념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끈질기고 집요하며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가 여기에 속하며 지식의 심화가 특징이다. 그러나 내향적 사고가 지나치면 사고를 통한 판단은 경화되고 완고해져서 남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 반면 객관적인 표현력은 결핍되어 예민한 감정으로서 대치된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② 감정(Feeling function)

감정은 사고나 마찬가지로 이성의 범칙에 따라 진행되는 판단의 한 양식이며 자아와 주어진 내용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일정한 가치 (快, 不快)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른바 “기분”으로 그때 그 때의 일시적인 의식내용이나 일시적인 지각 내용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순간적인 의식상황의 평가로서 수용과 배척의 평가이다. “情感”이란 감정이 고양되어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순수한 감정이 감각과 섞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구체적 감정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주관적이고 개인적 평가이며 추상적 감정은 어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다. 능동적 감정통각은 주체가 그의 의도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동적인 감각적 통각은 어떤 내용이 감정을 자극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감정 판단이 주체가 되는가 객체가 되는가에 따라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눌 수 있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a. 외향적 감정형(Extroverted feeling type)

객체적 기준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며 전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에 부합되는 감정 판단으로 객관적인 감정에 대한 순응하는 것이다. 감정기능이 그의 생활의 주요한 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감정은 객체에 기준을 두고 있다. 감정은 여성 심리의 가시적인 특징인 만큼 여성에게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의 감

정은 객관적 상황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순응하며 이들은 교육을 통하여 훈련되어 있고 감정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식의 조절하에 있다. 주기능이란 언제나 의식의 기능이고,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파티의 여주인공을 연상하면 쉽다. 외향적 감정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가장 열등한 기능이 내향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노이로제 는 유아적 성격 관념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b. 내향적 감정형 (Introverted feeling type)

주체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되며 내적인 가치, 마음속의 상들(원초적인 마음의심층에서 나오는 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 즉, 종교적인 감정의 형태를 띤다. 무척 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므로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객체에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결코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돌구어 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화된 쾌적한 안정감,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은 서늘한 느낌을 주며 어느 집단의 윤리적 지주가 된다. 내향적 감정형의 가장 열등한 기능은 사고기능으로써 미분화된 상태를 분화시켜 나가는데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무의식적인 사고를 지나치게 억압하게 되면 절대한 객체의 의미와 힘을 느끼기 시작하며 남의 이야기를 엿듣고 풍문에 사로 잡히고 위협적인 객체를 이기기위한 강박적인 노력을한다. 히스테리보다는 신경쇠약성 신경증이나 여성에게서는 특히 강한 신체적인 변화 즉 빈혈이라든가 이에 따른 신체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흔하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③ 감각(Sensation function)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능이며 어린 이와 원시인의 가장 특징적인 본질이다. 사고나 감정처럼 理性的의 범칙을 통한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감각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늘 상상, 감정, 사고와 섞여 나타난다. 추상적 감각은 그 자체의 원리를 쫓아서 知覺하는 것으로 미적 感覺이라고 부르며 의지적인 행위이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a. 외향적 감각형(Extroverted sensation type)

감각이 주로 객체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장 강한 감



각을 야기하는 객체가 이 형의 사람에게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어느형과도 비길 수 없는 현실주의자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감지하는 능력이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쓸 새 없이 쌓아 나간다. 이 형에 속하는 사람은 실무에 밝은 행정가 사업가기술자 건축가 응용미술가등이 있으며 외부사실을 재빠르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계를 맺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하고 정리할 겨를이 없이 항상 새로운 그리고 강렬한 대상을 향해 감득해 나가며 그의 가장 열등한 기능인 직관은 완전히 의식엿 사라진다. 외향적 감각형이 객체와의 감각적 유대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본래 풍부한 예감 능력으로 발휘하던 직관기능이 의혹의 성격을 띠고 외계로 투사되면 그것이 성적인 대상과 결부되면 질투 환상을 일으키며 그 대상에 대한 분방한 환상을 한다. 무의식과의 해리가 나타나면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이 생기는데 공포증이나 강박증이 생긴다. 이성에 호소할 만한 합리적인 기능이 미분화 되어 있으므로 치료가 어렵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b. 내향적 감각형(Introverted sensation type)

감각의 주관적인 요소는 하나의 무의식적 요인으로 서 감각적 지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변화시키고 그것에 순수한 객체적 간섭을 제거하여 객체를 그대로 재생하는 상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태고적, 그리고 미래를 향한 주관적 체험의 침전물로 밖에 감싸는 상을 매개한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감각적 인상은 풍부한 예감의 깊이로 발전한다. 객관적 자극에 의해 생긴 주관적 감각부분에 따라 그 행위가 결정되며 객체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객체에서 오는 자극은 객체의 현실에는 이미 연관되지 않는 주관적인 반응을 통하여 즉시 대처됨으로써 그 가치가 감소된다. 외향적 감각형과는 달리 내향적 감각형은 반드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감각이 예술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향적 감각형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되는 것은 직관 기능으로 직관은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감각의 부정적 측면은 구체적인 현실에 매이게 되어 미래의 가능성이 感得될 길이 없고 '지금'과 '여기'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의 의식의

내향적 감각태도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객체적 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주제적 현실로서 상당히 무의식적인 고대적 현실이 된다. 이런 형의 무의식에 파묻혀 있는 직관은 현실의 어둡고 음산하고 불가해하고 위협스러운 배경을 예측하려고 하여 그 정도가 넘어서면 강박관념으로 의식 표면에 나타난다. 강박신경증이며 피로증상 뒤에 히스테리성 특징을 보인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④ 직관(Intuition function)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으로 본능적인 파악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악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의 本能的 配置이며 사고나 감정의 내용처럼 유도되거나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직관은 무의식의 사실을 인식하는 주관적 형태의 지각과 그 인식을 통해 야기된 감정과 사고에 의거한 객관적 형태로 나타난다. 사물의 事實性을 인식하는 구체적 직관은 하나의 반응 과정으로써 이념적 연관의 인식을 증개하고 추상적 직관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또는 의지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감각과 함께 직관은 사고와 감정과 같은 합리적 기능이 성장하도록 하는 母體로써, 주로 인식과 행동 수행의 방향에 따라 내향적 직관형과 외향적 직관형으로 구별된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a. 외향적 직관형(Extroverted intuition type)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아 차리는 기능이다. 외향적 감각이 객관적 '事實'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외향적 직관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客觀世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비상한 능력을 발휘한다. 외향적 감각형과 외향적 직관형의 경우 곧잘 혼동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객체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감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외향적 감각형에서의 감각은 직관적 觀照를 방해하여 사람의 시선을 객체의 물리적 표면으로 향하게 하는데,이것을 지나 그 背面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외향적 직관형이다. 기업가 상인 신문기자 정치가등에 이런 유형이 많으며 현실적인 감각보다 미래지향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다. 이 형에서의 열등기능은 감정과 사고로써 이들은 타인에 대하여 그

리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소홀히 하는 기능으로는 감각으로 이 때문에 자신의 신체 감각을 소홀히 하며 그러다가 앓고 늙게되거나 노이로제에 걸리면 비로소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강박증상, 특히 건강염려성 강박관념이나 건강에 대한 공포증 또는 병적인 신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b. 내향적 직관형(Introverted intuition type)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향하며 비록 직관기능이 객체의 어떤 가능성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객관세계에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原始的인 요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파악한다. 내향적 직관형에서는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의 가능성보다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촉진하며 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이런 류의 사람은 선지자 예술가 시인 정신치료가 정신과의 심리학자가 여기에 속한다. 내향적 직관형에서는 감각기능이 가장 억압되어 열등한 상태에 있고, 특히 외향적 감각이 가장 未分化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른바 '현실감각'이 극도로 결여되어 구체적 현실에는 적응하지 못한다. 쉽게 충동에 사로 잡히며 강박적으로 객체적 감각에 구속된다. 강박신경증으로 건강염려증상, 감각기관의 과민상태, 혹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박적인 속박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4) 劣等機能의 認識과 自己實現

自己實現은 한마디로 個性化이며 진정한 個性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즉 그 사람 全部가 되는 것이다. 이 自我實現을 위해서는 먼저 自我를 덮어씌운 '페르조나'를 벗겨야하며, 또한 自我를 無意識의 암시적인 힘에서 구출하여야 한다. 즉 無意識을 意識化하는 것이다. 無意識의 내용을 깨달아가는 단계에 누구에게나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와 같은 것의 意識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心理的 機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사람은 정상적으로 精神의 四機能중 하나의 主機能 혹은 優越機能과 다른 3개의 補助機能을 가지고 있다. 이중 가장 未分化된 4기능을 劣等機能이라 하며 이 劣等機能의 分化가 自己實現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劣等機能이란 無意識화된 機能이며 무의식의 의식화가 自己實現의 핵심적인 과정이므로 이 劣等機能의 의식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劣等意識을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 機能의 劣等性を 인식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劣等한 機能은 우선 劣等한 狀態로밖에 자기의 狀態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자존심이나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美的 外觀을 損傷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서 劣等意識은 서서히 分化될 수 있으며 이런 無意識의 意識化를 통하여 그는 自己實現에 한걸음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14,20)</sup>

<표. 2> 精神의 4機能 類型의 要約

정상 특성	부적용 특성	성격장애 특성	정상 특성	부적용 특성	성격장애 특성
외향적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원칙주의 이상주의 현신적인 합리적인	교조주의 외골수 편협한 냉정한	은둔적인 냉정한	독립적인 상처입기쉬운 고집하는 완고한	수세적인 걱정하는 내키지않는 완강한	예치로운 민감한 내키지않는 급하지 않는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순용하는 관련된 적절한 실용적인	해리된 과잉의 피상적인 계산적인	요구하는 과잉의 피상적인 잘다투는	동정적인 조화로운 삼가는 가감기어려운	대신하는 의존적인 비밀스러운 우울한	대신하는 의존적인 의지할태없는
외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		
현실적인 경계하는 유쾌한 즐거움	용고된 정견을빼는 제막주의의 굳어진	비효율적인 방어하는 말을안듣는 지연된	조용한 통제되는 절도있는 해가되는	방어적인 통제하는 냉담한 평범한	냉정한 통제하는 원벽주의의 뚜렷하지않은
외향적 직관형			내향적 직관형		
모험하는 떠나는 팽창적인 제어않된	거만한 무책임한 불안정한 무례한	취척하는 무책임한 불안정한 성미러운	몽상적인 감각적인 공상의 예언적인	과대망상의 강박적인 자기몰입의 환상의	과대망상의 노출적인 자격이 있는 환상의

IV. 總括 및 考察

모든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그 개인의 특징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獨自性이 부여되어 있다. 個體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인격이 가

지는 決定性向에 따라 그 특징이 결정되며, 잠재적인 精神身體的 體系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격 형성의 발달 과정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나열하거나 무질서하게 주워 모은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떤 관념이나 습관을 類型이나 혹은 類層으로 조직화하여야 한다<sup>1)</sup>. 李濟馬의 四象說과 융의 4類型論은 동서양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정신 혹은 마음을 類型化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는데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sup>2,4,5,6,7,14,24)</sup>. 이에 著者는 이 두 이론의 基本的인 概念, 分類方式, 分類된 類型들이 特性 및 心理的인 差異, 이로인한 差異點의 解決 方法 等을 比較 考察하고자 한다.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기본적으로 性理學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人間을 가장 中心에 두고 모든 理論을 展開해 가고 있다. 그가 보는 人間은 自律的인 人間이고, 善과 惡의 兩面性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精神世界와 物質世界에 모두 關心이 있는 肉體的이면서도 精神的인 人間이다. 또 人間은 누구나 天賦的인 差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自己에게 부여된 能力에 맞게 生活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人間觀을 가진 李濟馬는 이런 稟賦의 偏差를 ‘太少陰陽人’이라는 네가지의 類型으로서 規定하고 各各의 類型(體質)의 長短點과 그의 解決方案을 말했다. 융은 李濟馬와는 달리 人間全體(肉體와 精神)을 論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정신을 보는데 있어 精神的인 現實을 重要視하였다. 즉 社會나 外部世界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主體(人間)의 體驗으로서의 그 主體의 精神的인 現實을 중요시하였다<sup>2,4,5,6,8)</sup>. 융은 프로이트나 그 밖의 자기의 학설에 반대하는 학자들, 혹은 그의 臨床에서 보았던 많은 환자들을 통하여 인간마다 思惟하는 방법에 差異가 있음을 알았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의 판단을 미리부터 결정하고 제약하는 것이 비로 그 사람의 型이라 하여 心理學的 類型論을 발표하였다. 또 無意識의 이론과도 結付시켜 이런 자기만의 類型은 자신의 個性이 될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치면 잠재된 무의식적인 기능이 그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의 미분화된 劣等機能을 分化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sup>1,14,20)</sup>.

李濟馬의 四象에서 太少陰陽人의 分類는 易理에서 말하는 陰陽의 偏差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本體로서

認識되어지는 概念이다. 즉 太少陰陽人 各各은 하나의 獨立的인 人間의 類型이다<sup>2,4,5,6,8)</sup>. 융에 있어서의 思考, 感情, 感覺, 直觀型은 意識(表面)에 나타나는 優越機能인 思考, 感情, 感覺, 直觀中 어느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며 누구의 精神이나 네가지 기능 모두 존재한다<sup>1,14,20)</sup>. 그러므로 이제마와 융은 人間의 類型을 네가지로 나누었지만 類型論的인 人間을 보는 觀點에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類型論的인 差異로 인하여 나타나는 人間의 心理(精神活動)에서 差異點이 있다는 것은 李濟馬와 융의 공통된 見解이다. 비록 李濟馬는 精神的인 문제뿐 아니라 身體的인 면에서도 差異가 있음을 말하였으나 융은 精神的인 면에만 局限시켜 理論을 전개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둘 사이의 差異點은 論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 본다.

四象醫學의 太少陰陽人 各各과 융의 4類型人 各各을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心理的인 類型을 바라보는 東西양의 差異 혹은 類似點을 알 수 있고 나아가 韓醫學이 精神 治療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이에 서로를 비교하여 보겠다. 그러나 인간의 類型을 밖으로 들어난 外的인 心理傾向으로 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 이외에 外的 環境이 加味되어 本質을 흐릴 수 있으므로 두 이론에서 말하는 가장 本質的인 差異點을 위주로 하겠다. 李濟馬의 四象說에 있어서 心理的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性情論이다<sup>2,4,5,6,8)</sup>. 性情論에서 李濟馬는 喜怒哀樂의 性情과 天機 人事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外部와 연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경향인 것이다. 이는 사상인의 心理的 本質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마는 知行論에서 知는 우리가 자연적 혹은 선천적으로 받은 능력이며 行은 그런 능력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는 의지라 보고 있다<sup>2,4,5,6,8)</sup>. 이는 외적인 要素가 전혀 없는 太少陰陽人 自體의 심리적 경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융은 비록 심리적 기능을 論하고 있으나 인간의 유형을 말함에 있어서는 內向型, 外向型이라는 의식의 一般的인 態度 類型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14,20)</sup>. 이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心理보다는 外的인 態度傾向에 主眼點을 두었다고 본다. 이에 李濟馬의 知行論과 융의 一般的인 態度 類型

을 排除한 精神의 4機能을 中心으로 서로를 비교하겠다.

李濟馬는 知와 行도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각각 네단계로 나누어 표현하였으며 각각 太少陰陽人과 연결을 시켰다. '知'에는 籌策·經綸·行檢·度量이 있으며 이는 각각 太陰人·少陰人·太陽人·少陽人에 해당하고, '行'에는 識見·威儀·材幹·方略이 있으며 이 또한 각각 少陰人·太陰人·少陽人·太陽人에 해당된다. 즉, 知에 있어서 度量이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少陽人에 해당하고, 行檢은 사회생활에 적합한 상태로 절제와 규제의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 지는 것으로 太陽人에, 經綸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少陰人에, 籌策은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 혹은 지식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太陰人에 해당된다. 行에 있어서는 方略은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행동 능력을 말하며 太陽人에, 材幹은 필요한 행동 면에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스스로 익혀서 표현하는 것으로 少陽人에, 威儀란 우리가 익힌 기본적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太陰人에, 識見은 실재없이 변하는 상황속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少陰人에 해당한다<sup>2,4,5,6,8)</sup>.

용은 사고(Thinking function)란 주어진 관념내용을 그 고유의 범칙에 따라 서로 연관 시키는 정신기능이며 능동적 사고 작용은 어떤 목적을 향해 방향지워진 사고로서 의지적 판단 작용이며 합리적이지만, 수동적 사고 작용은 일종의 직관적 사고로서 비합리적, 감정적 사고이고 논리적 원칙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종속된 사고라고 했으며, 감정(Feeling function)은 사고나 마찬가지로 이성의 범칙에 따라 진행되는 판단의 한 양식이며 자아와 주어진 내용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일정한 가치(快, 不快)를 부여하는 과정이라하여 이른바 "기분"으로 그때 그 때의 일시적인 의식내용이나 일시적인 지각 내용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순간적인 의식상황의 평가로서 수용과 배척의 평가이다라고 했다. 감각(Sensation function)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능이며 어린이와 원시인의 가장 특징적인 본질로 사고나 감정처럼 理性的 범칙을 통한 판단이 아니며 직관(Intuition function)은 무의식적인 방

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으로 본능적인 파악하여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여 파악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의 本能的 配置이며 사고나 감정의 내용처럼 유도되거나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특징이 이라 하였다<sup>1,4,5,6,7,10,14,15,16,17,20,21,23,24)</sup>.

이 둘을 비교하여 보면 太陽人은 直觀型과, 少陽人은 感情型과, 太陰人은 感覺型과, 少陰人은 思考型과 心理體系 및 心理傾向에서 서로 類似함을 알 수 있다.

李濟馬의 경우 각각의 體質은 그 체질에 따른 특징이 있고 그체질에 따른 養生法이 있다. 즉, 四象人에 있어서 肺脾肝腎의 大小에 따른 上下升降의 偏在性 때문에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올 수 있으므로 體質의 知行을 통하여 暴動浪動을 豫防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四象人의 性氣는 進·舉·靜·處하며, 情氣는 雌·雄·外·內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太陽人은 '退一步', 少陰人은 '進一步', 少陽人은 '察於內', 太陰人은 '察於外'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또 人事에 있어서도 생활속의 內外的 均衡生活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런 李濟馬의 四象人의 體質의인 脆弱點을 克服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儒學에서 말하고 있는 中庸의인 均衡生活이 中心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sup>2,4,5,6,8)</sup>. 용은 人間의 精神은 네가지 機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心理機能의 分化程度에 따라서 각 類型이 나타난다고 보고 性格障礙란 하나의 機能이 過度하게 발달하여 그와 對極을 이루고 있는 機能이 無意識속에 抑壓되어 있다가 意識이 弱화되었을 때 無意識에 잠겨 있던 劣等機能이 未分化된 상태로 정신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精神障礙의 治療에는 이런 억압된 기능을 의식속으로 分化해 내는 것이 必須的이라 하였다. 이러한 용의 생각도 李濟馬와 마찬가지로 그 機能 自體가 病理的인 것은 아니지만 精神 機能의 한 쪽으로 치우쳐 分化되어 다른 기능이 억압되면 精神障礙를 일으키므로 均衡있게 발달시켜야 한다<sup>1,14,20)</sup>는 점에선 이제마가 말한 中庸의인 均衡生活과 一脈相通한다 하겠다.

용은 精神을 精神 그 自體로 보고 人間의 精神을 腦機能이나 그 밖의 身體의 機能에 예속 시키는 것을 배격하였으나 그의 末年에 연구한 '同時性(Synchronizität)'理論은 物質과 精神의 相互關係에 있어서 볼 수

있는 非因果論的 原則(akausales Prinzip)을 말한 것으로 物質과 精神의 二元論을 止揚하고 분리된 兩極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sup>4,25)</sup>. 李濟馬의 四象 理論을 人間을 肉體와 精神을 分離하지 않고 心身을 同一視하고 있다<sup>2,4,5,6,8)</sup>. 따라서 向後 두 理論의 接木을 통한 東醫 神經精神科 領域에서의 心理的인 治療 및 藥物的 治療의 發展이 可能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持續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 V. 結 論

李濟馬의 四象人 性情과 융의 4機能 類型을 比較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象에서는 體質에 따른 고유한 心理的인 性向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융의 四類型論에서는 네 가지 機能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意識化된 優越 機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類型이 정해진다고 보고있어 人間의 精神構造를 把握하는 點에서 있어 多少間의 差異가 있다.
2. 그러나, 人間心理의 機能 즉 作用面에서 四象과 4 類型을 비교하면 서로 상당한 類似點이 있다.
3. 少陰人의 心理는 4유형중 사고형과 유사하며, 少 陽人의 심리는 4유형중 감정형과 유사하고, 太陰 人의 심리는 4유형중 감각형과 유사하며, 太陽人 의 심리는 4유형중 직관형과 유사하다.
4. 李濟馬는 性情의 體質的인 偏在現狀의 치료방법으 로 中庸的인 治療方法을 제시하였고, 융은 각 類 型的 機能 偏差의 治療方法으로 無意識의 意識化 를 통한 自己實現의 方法을 제시하여 서로 유사 한 점이 있음을 알았다.
5. 韓方精神科 治療에 있어서 四象人의 心理的 差異 에 의한 性情의 偏在現狀을 이용하면 醫師가 患 者를 治療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醫師와 患者와의 心理的 葛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治療에서 도 古典的인 韓方治療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 四象人의 性情의 偏差에 따른 心理的인 문제를 精神科의 疾患의 治療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1. 권오석 : 무의식의 분석, 서울, 홍신문화사, pp. 82-98, 1990
2. 黃義完 外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p. 38-45, pp. 783-797, 1987
3. 余朋千 著, 趙慧仁 譯 : 新東洋醫學概論, 서울, 一 中社, pp. 71-84, 1991
4. 송일병 外 :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pp. 36-49, pp. 59-88, pp. 120-123, pp. 244-258, 1997
5. 洪淳用 : 四象診療保元, 서울, 書苑堂, pp. 57-110, 1991
6. 이의원 : 인간, 세상 그리고 체질의학, 서울, 삼화 출판사, pp. 23-29, pp. 47-59, pp. 224-251, 1996
7. 宋一炳 :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사상사, pp. 227-269, 1996
8. 宋一炳 : 李濟馬 哲學의 學問의 背景과 四象醫學 的 成立에 對한 考察, 원광한의학, Vol2, No1, pp. 15-22, 1992
9. 金東匹 : 舍岩鍼灸學의 運用에 依한 病證診斷의 適否判別法, 대한한의학회지, Vol16, No1, pp. 204-206, 1995
10. 趙炳泰 : 四象說에 의한 性格分類와 適性職業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1. 李忠烈 : 情緒分類에 대한 東西比較 考察,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1. 洪淳用 : 四象體質의 辨證論, 동양의학, Vol15, No1, pp. 11-17, 1989
13. 禹基田 : 四象人에 對한 性格心理的 考察,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14. 李符永 : 分析心理學, 서울, 一潮閣, pp. 41-54, pp. 113-175, 1978
15. 李鉉洙 : 性格과 個人差의 心理學, 서울, 祐成文 化社, pp. 11-51, 1989
16. 李祥雨 外 : 人間性格의 理解, 서울, 中央適性出 版社, pp. 145-181, 1984
17. 이재갑 : 심리유형과 심리장애에 관한 연구,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8. 박아청 : 성격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p. 68, p.

- 69, 1992
19. 宋一炳 外 :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Vol1, No1, pp. 42-45, 1980
  20. 권오석 : C. G. 융의 심리학 해설, 서울, 홍신문화사, pp. 6-16, 1990
  21. 羅濟民 : Carl Gustav Jung의 性格類型論에 따른 問題解決 樣相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2. 오병호 : 사상체질의학 창시자, 서울, 書苑堂, pp. 17-62, pp. 303-320, 1993
  23. 洪淳用 外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 1985
  24. 중국연변조선민족의학연구소 : 조선민족사상의학, 서울, 여강출판사, pp. 23-67, 1991
  25. 황익근 : 道와 심리학, 서울, 하나醫學社, pp. 27-45, 1993
  26. 許浚 : 增補國譯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 6-7, 1989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emperament of Sasangin(四象人)  
by Lee Je Ma(李濟馬) and  
The Psychological Types of  
Carl Gustav Jung.

Eun Kyu Choi O.M.D.,  
Byung Su Ku O.M.D.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have interest in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 in order to recognize the tendency of the mentality and the action. This paper compare the temperament of Sasangin(四象人) by Lee Je Ma(李濟馬) and The Psychological Types of C. G. Jung. As a result I get the following conclusions:

1. Sasang understood that Sasangin have original tendency of the mentality. But C. G. Jung understood man has all of the four psychological type though they have discrepancy among them.
2. In the function of the mentality, the both are similar.
3. The mentality of So-Eum-In(少陰人) is similar to The Type of Thinking. The mentality of So-Yang-In(少陽人) is similar to The Type of Feeling. The mentality of Tae-Eum-In(太陰人) is similar to The Type of Sensation. The mentality of Tae-Yang-In(太陽人) is similar to The Type of Intuition.
4. The tendency of the mentality by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 is of some use in the oriental medical therapy.
5. For using the tendency of the mentality in oriental medical psychotherapy, they require more studies.